쇠고기값 2월말부터 자유화 방침

—돼지고기 닭고기 소비증대유도—

농수산부는 2월말부터 쇠고기 행정지도가격제를 철폐, 시장기능에 맡겨 가격을 자유화할 방침이다.

농수산부당국에 따르면 올해 쇠고기수입을 중단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현재와 같이 쇠고기값을 행정지도가격으로 계속 묶어둘 경우 돼지고기, 닭고기등 국내 증산이 용이한 육류의 소비대체가 잘 이루어지지않을 것으로 판단돼 쇠고기가격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구정이 지난뒤 2월말께부터는 행정지도가격제를 철폐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농수산부당국자는 쇠고기값을 자유화했을 경우 한근에 3천5백원 수준으로까지 가격이 오를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돼지고기는 급격한 소비증대현상을 가져와 돼지고기값도 상당수준까지는 상승될 것으로 예측했다.

농수산부는 쇠고기 가격자유화와 아울러 부위별 등급판매제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으로 유도하는 문제도 검토중에 있으며 추석절등 성수기에 쇠고기 파동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축산진흥회로 하여금 한우를 구입 냉동육으로 비축토록하여 작년에 수입한 비축쇠고기와 함께 가격앙등시에 방출할 방침이다.

닭고기 드디어 돼지지육가격을 돌파

서울 도매시장의 돼지고기 경락가격이 지육으로 kg당 1,140원을 하고 있는 요즈음 닭고기는 농장출하 생체중 가격이 이에 육박하고 있으며 서울 근교 일부지방은 1,140원을 넘는곳도 있다.

닭고기가 돼지고기를 품질면에서 우월하다 하더라도 현재의 가격체제로는 소비의 감소가 불가피하여 돼지고기의 가격상승이 요망되고 있다.

국내 배합사료공장 총년산능력 2백67만 3천9 백 M/T

— 일산100M/T이하생산공장63% —

79년말 현재 국내배합사료공장은 79개소(농협산하 12개소 포함)로 년산능력(3 백일 가동기준) 2 백 67만3 천 9 백M/T으로 밝혀졌다.

한국사료협회(회장 : 정태원)의 자료에의하면 79년 12월말 현재 전국의 배합사료공장의 일산능력은 8 천 9 백13M/T이며 경기 · 서울지역에 53%, 공장수로는 44%가 집중되어있다.

그러나 이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배합사료 공장 근대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일산능력(8 시간 가동기준) 100M/T 이하의 군소공장이 50개소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배합사료공장 근대화시책에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있다.

배합사료공장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도별 생산능력

구분 / 시도별	사 협		농 협		計	
	공장수	1 일 생산능력	공장수	1 일 생산능력	공장수	1 일 생산능력
서울	12	1,166	2	150	14	1,316
부산	10	1,177	1	150	11	1,327
경기	17	3,170	4	280	21	3,450
강원	2	500	—	—	2	500
충북	2	200	—	—	2	200
충남	4	692	3	137	7	829
전북	4	390	—	—	4	390
전남	9	312	1	30	10	342
경북	4	354	1	35	5	389
경남	1	80	—	—	1	80
제주	2	90	—	—	2	90
계	67	8,131	12	782	79	8,913

＊생산능력별 공장수

일 생산능력	사 협	농 협	계	비율(%)
30톤이상	25	7	32	40.4
50 〃	16	2	18	22.7
100 〃	10	3	13	16.5
200 〃	10	—	10	12.7
300 〃	3	—	3	3.8
400 〃	1	—	1	1.3
600 〃	1	—	1	1.3
700 〃	1	—	1	1.3
계	67	12	79	100.0

＊배합사료공장 총괄표 (79.12.31 현재)

구분 / 소속	공 장 수	1일생산능력 (8시간가동기준)	월생산능력 (25일가동기준)	년 간 능 력 (300일 가동기준)	비 고
사 협	67	8,131	203,275	2,439,300	91.2%
농 협	12	782	19,550	234,600	8.8%
계	79	8,913	222,825	2,673,900	100%

농협, 암퇘지 출하비율제 폐지

— 돼지값 상승과 사육두수 감소에 기인 —

농협은 우성·협진등 민간도매시장및 농협 축산물 공판장에 계통출하하는 돼지의 번식용 어미돼지및 암돼지의 출하비율제를 전면 폐지 키로 했다.

농협은 이제까지 돼지의 계통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는 번식용 어미돼지는 계통출하량의 30%이상을, 암돼지계통출하량중 번식용 어미돼지를 포함해 60%이상을 의무적으로 출하토록 했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돼지값이 급격히 뛰고 있는 반면 사육마리수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2백80여만 마리로 지난해 9월에 비해 47만여 마리나 크게 줄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축산물수급체계 일원화

— 농협축산물공판업무 축진에 이관 —

농수산부는 축산물수급체계를 확립하고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기위해 농협중앙회기구 일부를 조정 축산물 공판업무를 3月말까지 축산진흥회로 이관시키기로 확정했다.

농수산부당국에 따르면 축산진흥회를 설립한 이래 축산물 수급체계가 2원화 돼 있어 수매에서부터 공급이 이르기까지 수급시책에 불합리한 점이 많아 수급창구를 축진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그기능을 강화 수급업무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기위해 농협중앙회 산하 축산물공판장을 축산진흥회에서 인수토록함과 아울러 축산물직매장 관리업무도 축진에서 맡도록 조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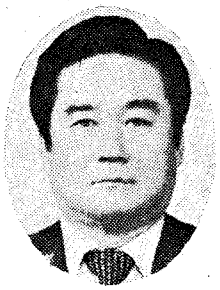
이에따라 농협의 기구개편 축산물 공판장에 대한 재산평가등 작업에 착수했는데 늦어도 3월말까지는 인수작업을 끝내고 4월1일부터는 축진에서 축산물공판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FAO한국협회 총회개최

— 김보현회장등 회장단 전원유임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한국협회(회장 김보현)는 지난 2월 13일 교육회관 대강당에서 제2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대한양계협회도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동협회는 이날 1억9백2십만5천원의 80년도 예산(안)과 국제협력사업을 비롯한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이어서 계속된 임원개선에서는 회장에 김보현(농촌경제연구원장), 부회장에 김주호(농수산부기획관리실장), 최종호(내무부 지방행정차관보), 조영제(수협중앙회 부회장), 최병진(농협중앙회 부회장), 채관식(농지개량조합연합회장) 등 5명을 회장단으로 그대로 유임시켰으며 그 외의 이사를 새로 선임하였다.



〈김보현 회장〉

이어서 동회는 2,000년대의 농업에 대하여 김동희박사(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미화환율 바스켓제 적용

재무부, 5백80원이하선 견지

정부는 이제까지 원화와 미화와의 환율을 기준으로 운영해온 환율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SDR에 연결된 통화바스켓제도를 2월26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환율변동의 실세반영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통화바스켓제도는 SDR바스켓에 근간을 두고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경쟁력을 반영한 독자 바스켓을 합한 복합바스켓제도로 운영된다.

처음 실시하는 바스켓제의 통화별 환율결정에 있어 SDR에 의한 바스켓은 대미환율의 경우 SDR에 대한 원화평가와 당일의 SDR대 미화달러환율을 제정하여 SDR바스켓에 의한 미화와 원화의 환율을 산출하도록 했다.

또한 독자바스켓은 바스켓내에 들어있는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와 미화달러에 대한 원화의 평가를 기준해 당일의 미화달러와 원화의 환율을 정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제도개편에 있어선 두개의 바스켓환율에 적용하는 가중치는 한은총재와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토록 했고 통화바스켓변동이 심할경우에는 한은이 개입해 이를 조정할수 있게 했으며 환율의 안정을 위해 대미원화 환율을 5백80원이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바스켓통화에 들어있지않는 "기타통화는 현재 운용하고있는 미화달러와 원화의 평가방법에 의해 환율을 결정토록 했다.

축산진흥사업에 총3 백58억원지원

가축개량·증식기반 조성에

축산진흥회는 올해 가축개량, 가축증식, 낙농, 사료대책등 축산진흥사업에 총 3백58억원을 투입, 대농민융자 및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축진에 따르면 올해 축산진흥기금중 2백18억원은 융자, 1백14억원은 보조금으로 지급, 가축개량 및 증식기반조성등 생산기반구축과 축산물수급조절등의 축산진흥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그 세부내용은 융자부문에서 가축개량 8억원, 가축증식 95억원, 낙농진흥 41억원, 목야조성 19억원, 사료생산 19억원, 축산물유통개선 33억원, 기타 3억원등이다.

또 보조금 지원부문은 비육우 출하장려금 21억원, 돼지수매결손보전 24억원, 사료가격차액보전금 85억원, 기타 10억원이다.

그런데 올해의 이같은 축산진흥기금 투융자 규모는 지난해 융자 3백40억원, 보조 1백65억원에 비해 상당히 감축된 것인데 이것은 기금의 주재원이던 수입축산물 판매차익금이 육류수입규제로 인해 대폭 줄어든데다 전반적인 불경기 여파로 투융자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축산물유통부문에는 지난해 돼지, 닭등 축산파동에서 드러난 유통체제의 미비를 보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융자규모 16억원 보다 대폭 늘어난 33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한국화이자 창립20주년 기념식 성료

— 합작투자10주년도기념, 장기 근속자 9 명등 표창도 —

한국화이자(대표 : 김중배)는 지난 2 월 21 일 오전11시 신라호텔 2 층 「다이나스티룸」에서 한국화이자 창립20주년 및 합작투자1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김중배사장과 「로버트D · 로이어」화이자 인터내셔날회장겸 사장등 약 5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 성황을 이룬가운데 개최된 이날 기념식에서 김중배사장은 기념사를통해 「국가는 우리에게 보다 더 차원높은 상태로의 도약을 요청하고 있으며 사회는 인류를 질병으로 부터 해방, 건강하고 건전한 체력을 배양토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명은 실로 중대한 시점에서 우리의 사명을 바로 인식,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의 광장으로 진출하여 그 대열에 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전진을 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15년간 장기근속 회사발전에 기여한 9 명에 대하여 표창하고 더욱 굳건한 회사로 발전 사회봉사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화이자는 연구에 기초를 둔 의약품제조업체로 새로운 약물발견에 대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있는 바 지난 79년도에는 연구발전을 위한 자금으로만 약17억불(약 9 천 9 백억원) 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이 투자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화이자 인터내셔날회장겸 사장 로버트D 로이어씨는 밝혔다.

이어서 동사는 오후 6 시에는 롯데호텔 2 층「에메랄드룸」에서 관련업계인사 2 백명을 초청 기념자축연을 가졌다.

도계법확대시행에 따른 간담회 개최

— 서울시, 3 월20일부터 자가도계장에 지도계몽실시 —

서울시는 2 월 20일 하오,오는4 월 1일부터 실시키로한 서울시 도계금지지역 확대에 따른 당면과제에 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3 월말까지 무허가도계장의 정비등에 따른 문제점이 주로 논의되었는데 3 월 20일 부터 자가도계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계몽을 실시하여 이전토록 유도하고 도심권에 있는 무허가 도계장은 업종을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이로서 서울시는 이제까지 종로,중구에 국한 실시해 오던 도계품유통을 4 월 1 일 부터 서울시 전 지역에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다.

美 사료곡물 수출에 난조

— 대소 선적중지로 곡물재고 급증 —

미국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군사개입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지난 1월4일 대소곡물 선적중지를 선언하였다. 이로인해 전세계 사료곡물시장은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특히 미국은 소련시장을 잃게 될경우 경제의 후퇴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열린 미·소곡물회담에서 79/80년도 소련의 미곡물 수입상한을 2천5백만톤으로 늘리는 것에 승인하였다. 이에 소련의 사료곡물 작황부조로 79/80년도 미국의 소련에 대한 곡물수출은 2천 7백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선적중지조치로 인해 옥수수와 밀만해도 1,700만톤 내외가 수출되지 않을 것이다.

이 중 사료곡물 특히 옥수수의 경우를 보면 곡물협정에 의한 최소보장량은 300만톤이나 금년 1월4일 이전까지 소련에 도착한 미국산 옥수수는 약 280만톤에 달하며 당시까지 구매계약은 이루어 졌으나 1.4조치로 인해 船積이 금지된 물량이 1,000만톤에 달하며 계약은 안되었지만·소련에 더판매될 것으로 예상했던 량이 300만톤으로 추산되어 소련에 판매되지 못하는 옥수수가 약1,3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이미 계약된 사료곡물중1.4조치로 인해 수출길이 막힌 사료곡물 전량을 수출가격으로 구입해서 별도 비축하기로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옥수수및 기타 사료곡물의 政府融資價格을 올려 農家저장을 유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 옥수수재배面積을 줄여가며 소련이외의 미곡물수입국에 대한 輸出을 증대하기 위해 수출금융을 늘리고 옥수수소비증대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소련에 수출되지 못하는 옥수수 1,300만톤중 400만톤은 다른 輸入國에 판매될 것으로 보고있다. 그리고 나머지 900만톤은 식량원조, 輸出, 알콜생산, 가공품생산 및 축산물생산증가등을 통해 소비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여있다.

△ 미국은 1·4대소 곡물선적중지 조처로 곡물재고가 급증, 사료곡물 수출에 골치를 앓고 있다.

1979년도 美國의 사료곡물생산량은 옥수수가 지난해보다 10%증산된데 힘입어 전체적으로 지난해 보다 7.5%즉1,640만톤이 증가되었다. 이에 반해 국내소비량은 작년보다 3%즉 470만톤의 증가에 그칠것으로 예상될 뿐아니라 대소조치로 인해 사료곡물 수출량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어 금년도 말의 사료곡물 재고는 지난해보다 약30% 즉 1,380만톤 정도 늘어 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어려움속에 미국정부는 미국및 전세계의 사료곡물시장을 1.4조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각종 정책적 뒷받침을 다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새로운 사료곡물 소비시장을 얼마나 빨리 개척할 수 있는지 문제점을 안고있다.

작년도 배합사료생산 3백88만여톤

— 전년대비 44.1%증가 —

농수산부는 1979년도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량을 집계 발표하였다.

발표에 의하면 총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대비 44.1%가 증가한 3백88만2 백35톤으로 양계용사료는 2백4만3천5백69톤으로 전체 배합사료중 5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4.7%가 증가하였다.

한편 1975년에 비해 총배합사료 생산량은 4.3배가, 양계용의 경우는 3.6배가 각각 증가하였다.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추세(전체)

품목 / 년도	양계용				양돈	낙농	비육	기타	계	75기준 증가대비	전년대비 증가비율
	육추	산란	육계	소계							
1975	104,200	371,400	93,000	568,000	135,000	150,700	33,500	12,800	901,000	100	100
1976	173,300	546,400	148,100	867,800	267,100	173,000	43,500	90,100	1,381,526	153.3	153.3
1977	217,089		240,561	1,154,924	350,236	26,707	95,528	32,295	1,898,690	210.7	137.4
1978	304,753	882,076	451,725	1,638,554	498,110	320,728	233,088	2,625	2,693,105	298.9	141.8
1979	330,230	1,144,449	571,890	2,043,569	1,129,895	438,512	266,206	12,053	3,880,235	430.7	144.1
전년대비 (79/78)	108.4	129.4	126.6	124.7	226.8	136.7	114.2	78.2	144.1		

SPF 백신 활용 촉구

- 가축방역사업 효과적 추진위해 -

농수산부는 80년도 가축방역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완벽한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해 각종계장에 종계에 한해서는 SPF(무균난)난을 사용하여 제조한 백신 (ND생독, 계두)을 사용해 예방접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SPF 백신활용을 촉구했다.

2월4일 농수산부에서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백신 품질개선책의 일환으로 종계용 백신에 대하여는 녹십자수의약품(주)(대표: 한길무)으로부터 SPF난을 수입하여 ND 생독백신과 계두백신의 종계 전수수에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충분량을 생산공급하고 있다한다.

SPF란 백신이라함은 특정 병원체가 없는 발육계란(Specific Pathogen Freee ggs 에 접종 증식시켜 만든 백신으로 백신에 의한 질병의 전파가 없다.

원유가 인상

2월 2일부터 kg당 266원

농수산부는 최근 사료가인상과 제반경비의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낙농농가보호를 위해 2월 2일부터 원유kg당 가격(유지율 3.4%기준)을 249원에서 266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유지율 0.1%등락당 가격을 종전7원30전에서 7원 80전으로 6.8%인상하고 유지율 2.7%이하는 종전과 같이 0.1%하락시 20원씩 경감키로 했다.

이로서 원유가는 지난해 12월11일 원유kg당 209원에서 249원으로 인상한 이후 2개월만에 다시 6.8%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전국계우회연합회 제1회 정기총회 개최

— 모범계우회 소개와 공로패수여도 —

생산 및 난가조절을 통한 채란업의 안정된 기반조성을 목표로 결정된 전국계우회연합회(회장 : 김종현)는 지난 2월29일(토)오후 세종문화회관 회의실에서 1980년도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전체 60개 회원계우회중 50여개 계우회와 유관기관인사들이 참석리에 개최된 이날 정기총회는 경과보고에 이어 김종현회장(한국계우회)의 인사와 한국축산학회장 이재근박사(고려대 교수)와 대한양계협회 민덕기 부회장의 내빈축사가 있었다.

민덕기 부회장은 축사에서 그간의 양계업계 동향을 보고하고 지난 28일 양계협회 이사회에서 오세정회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로 참석하였음을 밝히고 협회임원으로서 그간 전체양계인의 가려운데를 일일이 긁어주지 못해 미안스러운 마음을 금치못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민부회장은 비대한 양계업도 이제는 분화된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같은사람끼리 모여 공통의 관심사를 논해야 한다고 발표, 현·양계협회를 연합회로 승격하여 양계업의 구심체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시사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2개월 이내 모든 사항을 다무리 질 예정임을 밝혔다.

이어서 총회는 차두흥(한일농원대표), 이계조(천호부화장대표), 최명훈(월산농장대표)씨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하준완(계란도매상 동진상회대표)씨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이어서 총회는 인천계우회 권병태회장의 모범계우회소개와 동두천계우회 김광옥회장의 양계인의 결의문 낭독을 하고 성원보고에 이어 의안 심의를 마치고 폐회 하였다.

농수산부, 85년부터 농업 재해보험제 실시

— 곡식지대 30개면 내년부터 우선실시예정

농농수산부는 오는85년부터 농업재해보험제도를 실시할 계획아래 우선 81년부터 84년까지 곡식지대 30개면을 대상으로 수도작에 한해 농업재해 공제보험에 가입토록할 방침이다.

농수산부 당국은 한해, 수해, 기타 기상의 이변등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농민들이 농사를 망쳐 큰 피해를 입어왔으나 정부의 재정뒷받침이 어려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했다고 지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업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오는 85년부터 수도작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수해, 조해 또는 병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논은 년평균 13만 9천ha에 이르고 있으며 년간생산량의 3.2%의 감수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업재해에 대한 보험제도실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농수산물 가격안정대 품목 축소

— 쇠고기·돼지고기등 9개품목제외—

농수산부는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 실시해온 가격안정대품목을 재조정, 현행 18개품목에서 안정조치가 가능한 9개품목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2월 1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현행 가격 관리상 농수산물중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양파등 4개 농축산물과 갈치, 고등어, 명태, 물오징어등5개 수산물등 모두 9개품목을 제외하고 콩, 팥, 닭고기, 참깨, 낙화생, 북어, 건멸치, 건오징어, 감등 9개 품목만을 가격안정대로 유지키로 하고 물가당국과 협의에 들어갔다.

농수산부가 당초 올해부터 달걀,사과등 10개 품목을 가격안정대품목으로 추가하려던 방침을 바꾸고 오히려 축소조정 하려는 것은 이들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사업을 위한 물량확보가 사실상 불가능, 상·하한선이 지켜지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 한채 재정적자만을 누적시켰기 때문이다.

농수산부는 또 현재의 고정 상·하한선 제도가 농가물가격의 특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하한선제도에 계절적인 진폭을 반영, 이를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품목별 상·하한선도 실제에 맞게 재조정키로 했다.

△ 농수산부는 돼지고기 등 9개 품목에 대하여 가격안정대 품목에서 제외시켰다.

육가공품부적합 가장많아

— 서울시, 지난해 식품검사결과 밝혀져 —

식품검사결과 부적합률이 가장높은 식품은 식용어육류로 밝혀져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청되고 있다.

서울시 보건연구소가 지난 한햇동안 실시한과자류등 7종에 모두 8천3백45건을 수거검정한 결과 소지지등 육가공품이 12%로 불합격율이 가장높고 그다음이 청량음료로 7.6%이며 과자류는 1.7%로 부적율이 가장 낮았다.

특히 고추가루의 경우 검사결과 3백10건중39건이 부적으로 판정됐는데 대부분이 공업용 색소(유용성)를 사용했으며 두부류는 2백8건가운데 응고제 과잉사용이 28건으로 밝혀졌고 콩나물의 경우는 농약잔류량의 기준미설정으로 유해여부를 가려내지 못했다.

한편 참기름의 경우 1천5백96건수거검정결과 부적합은 27건으로 대부분이 타기름과 혼식판매한것으로 밝혀졌다.

농안기금 운영규모 축소

— 쇠고기 수입판매익금 줄어 —

올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운영규모가 작년보다 1백49억원이나 줄어들어 농산물 비축사업을 감축할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농수산물당국에 따르면 올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액은 총8백39억원규모로서 지난해 9백88억7천7백만원보다 1백49억7천7백만원이 감액된것은 쇠고기 수입중단등으로 비축농수산물 판매수익을 1백여억원이나 줄여잡았고 정부출연금도 40억원이나 줄었기 때문에 기금의 운용한도도 줄일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농안기금 조달부문에 있어 지난해에는 판매수익금이 3백97억1천1백만원이었는데 비해 올해 2백90억원으로 줄었고 정부출연금도 1백2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줄어듬에따라 올해 기금 운용가운데 비축사업부문은 2백8억9천9백만원을 줄여 3백56억9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유당수입 규제

상공부, 수입감시 품목으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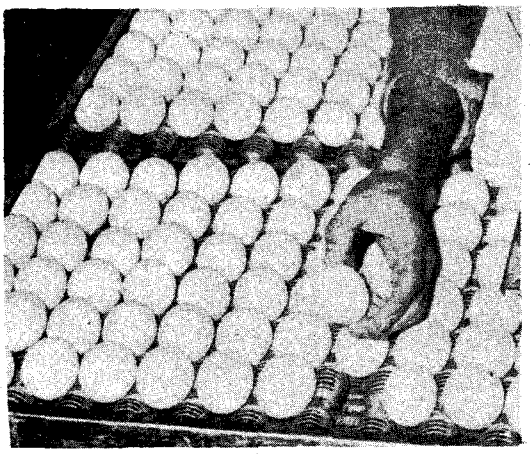
상공부는 낙농업계에서 최근 문제점이 되고있는 유당수입규제에 관해 지난 1월29일부로 상공부 공고 제80-7호로 수입자유화 품목에서 수입감시 품목으로 조치하였다.

이는 낙농협회(회장:전휴상)가 우유체화의 주요인이 되는 유당의 수입규제를 위해 지난해 10월 낙농진흥을 위한 건의와 금년 1월 우유수급책을 위한 건의등 2차에 걸쳐 유당수입의 문제점을 지적, 정부가 유당수입을 규제해 줄 것을 촉구한 바 농수산부, 보사부, 상공부등 관계부처와 합의 경제기획원의 인가를 받아 그동안 수입자유화 품목이었던 유당을 금년 6월까지 수입감시 품목으로 조치하는 한편, 7월 이후부터는 수입제한품목으로 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1인당 계란소비량 112개

— 닭고기 소비는 2.4kg —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1인당 계란소비량은 112개로 1970년 76개에 비해 147.4% 의 신장율을 보였으며 닭고기 소비량은 1인당 2.4kg으로 1970년 1.4kg에 비해 174.4%의 신장율을 나타내었다.



년도별 계산물 소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계산물 소비현황

년도별	계란(백만개)	육 계(M/T)
1970	2,456 (76)	45,177 (1.4)
1971	2,426 (74)	49,997 (1.5)
1972	2,790 (83)	54,266 (1.6)
1973	2,500 (73)	51,801 (1.5)
1974	2,755 (79)	53,269 (1.5)
1975	2,896 (82)	55,594 (1.6)
1976	3,048 (85)	60,886 (1.7)
1977	3,552 (97)	73,052 (2.0)
1978	3,743 (101)	80,846 (2.4)
1979	4,331 (112)	90,000 (2.4)

※ 1. ( )안의 국민일인당 소비량

돼지·닭 수매 계획

인천축진회, 값하락막기위해

축산진흥회 인천사업소 (소장 : 함규무)는 올해중 돼지와 닭고기값이 하락할 경우를 대비 경기지방에서 돼지 9천두 및 닭 12만마리 등 총 6백12t을 수매할 계획이다.

동사업소에 따르면 현재 인천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량은 수입쇠고기 1천60톤 국내산돈육35톤, 국내산닭고기 42톤등 총 1천1백39톤이며 올해중 수매량은 돈육4백 68톤(9천두)와 닭고기 1백44톤(12만수) 로 가격유지에 힘쓰기로 했다.

우량목초 씨앗 공급

농협, 초지조성확대 위해

농협중앙회는 초지조성확대를 위해 오는3월말까지 모두 1만4천72kg의 우량목초씨앗을 축산단지와 축산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농협이 공급할 목초씨앗은 수확량이 많고 한국풍토에 적합한 오차드·그라스가 1만3천14kg, 메마른 토양에서도 성장이 좋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2백14kg, 영양가가 높고 생장력이 강한 라디노·클로바 8백14kg 등인데 파종적기는 3월중순부터 4월초순까지이다.

양계용 배합사료 생산실적 발표

— 전년동기1.3%증가, 육계 사료는48%에 그쳐 —

한국사료협회(회장 : 정태원)지난 1 월중 양계용 배합사료 생산실적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양계용배합사료 총생산실적은 작년동기에 비해 1.3% 증가한 16만 3천 2 백30톤이 생산됐으며 육추사료는 작년대비 90.9%, 산란사료는 131.5%, 육계사료는 47.7%에 달했다.

또한 이제까지는 육추. 산란. 육계사료로 구분 발표하던 것을 세분화하여 초생추, 중대추, 산란초기 · 중기 · 말기 종계, 육계전기. 후기사료등으로 세분하여 집계 발표하기로 하였다.

본지는 이에대한 자료를 매달집계 계제할 예정이다.

양계용 배합사료 생산실적

구분 / 월별	초생추	중 추	대 추	산란초기	산란중기	산란말기	종 계	육계전기	육계후기	계
1	2.438	7,209	17,025	88,385	36	177	23,839	7,785	16,335	163,229

유제품가격 올리지 않기로

— 비수기 소비위축우려 —

유가공업계는 원유가격인상과 유가. 전력요금상승등에 따라 정부가 유제품가격을 현실화 인상조정했으나, 출고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종전가격대로 받고 있다.

유가공업계는 지난 2 월초 농수산부가 유제품가격을 조정 공장도 최저6.8%에서 최고12.9%, 소매는 최저6.6%에서 최고11.6 %까지 올려받도록 허용했으나 비수기를 맞아 소비가 둔화, 심한 체화현상을 빚고 있음을 감안, 대리점출고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한국유가공업계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유제품가격 인상문제를 놓고 협의한 결과 비수기인 요즘 가격인상을 단행할 경우 소비위축현상만을 초래하게될 것이므로 이달말까지는 계절을 별로 타지않은 조제분유등 일부 품목만을 제외하고는 가격인상을 유보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작년 12월 유제품가격인상때도 분유, 시유, 발효유 등은 출고가격을 올렸으나 일부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가공유가격은 지금까지 올리지 않고 있다.

「축산진흥」誌 축산체험사례 수기 모집

축산진흥지는 동지 창간 2주년 기념사업으로 축산현장에서 실제로 겪은 체험수기를 모집하고 있다. (원고지 70매 내외)

원고마감은 4월 30일이며 현상금은 당선작 1편 30만원, 가작 1편 20만원으로 보낼 곳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622 (교원공제회관 8층) 축산진흥회 홍보실이다.

☎ 783—0051~60

금년도 총육류수요량 45만 4천톤

— 작년대비 5.8%증가, 닭고기는 4%감소전망 —

농수산부는 금년도 육류수요량을 지난해 42만9천톤에서 5.8% 증가한 45만4천톤 으로 발표했다. 이중계육은 79년도 9만톤 (1인당 소비량 2.4kg)에서 4%감소한 8만6천톤(1인당 소비량 2.2kg)으로 전체육류 소비의 18.9%로 작년21%에 비해 감소추세를 나타낼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계란은 작년 1인당 소비량 112개에서 6% 증가한 118개로 총수요44억8천5백만개의 계란이 수요될 것으로 발표했다.

농수산부에서 발표한 1980년도 축산물수요 추정은 다음과 같다.

1980년도 축산물 수요 추정

구 분	단 위	1980 (A)	1970 (B)	A/B (%)
육 류	천M/T (kg)	454 (11.8)	429 (11.8)	105.8
우 육	〃	116 (3.0)	114 (3.0)	101.7
돈육	〃	252 (6.6)	225 (5.9)	112.0
계 육	〃	86 (2.2)	90 (2.4)	96.0
우 유	천M/T	415 (10.8)	373 (9.9)	110.7
계 란	백만개 (개)	4,485 (118)	4,231 (112)	106.0

※ ( )는 1인당 수요량 임.

새초지법 4월부터 시행

— 79년 정기국회에서 의결 —

경제장관회의는 농수산부가 올린 초지법시행령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시행령개정안은 79년도 정기국회에서 의결된바 있는 새초지법이 80년4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구성: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법적제한지내의 초지조성 및 축산단지조성대상지 선정의 타당성등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초지의 대리조성 및 대리관리자:희망자의 신청에 의하여 허가청이 결정하도록 한다.

▶초지의 전용:주무장관이 추천하는 중요산업시설등을 위한 용지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토록 한다.

▶대리조성자의 선정, 초지전용의 허가권:농수산부장관이 가진 권한을 대폭적으로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도록 했다.

축산자금 7백43억 지원

-부산등 4개도매시장 설치-

정부는 축산자금기반구축을 위해 올해중에 축산진흥사업에 7백43억원을 지원하는한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4대 지방도시에 축산물 전문도매시장을 설치 하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전국축정과장회의를 소집, 이같은 지침을 하달했는데 특히 쇠고기 자급기반확립을 위해 암소 3만마리를 입식시킨다는 방침아래 마리당 20만원씩 60억원(전년비 50%증가)을 지원하며 육우교잡종보급을 지난해의 6천마리에서 2만마리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가격 폭락사태를 겪었던 돼지와 닭의 경우 생산예측기능을 강화하기위해 연2회 조사를 연4회로 늘리는 한편 우유수요증가에 대비하여 낙농단지를 중심으로 7천마리의 젖소를 입식시키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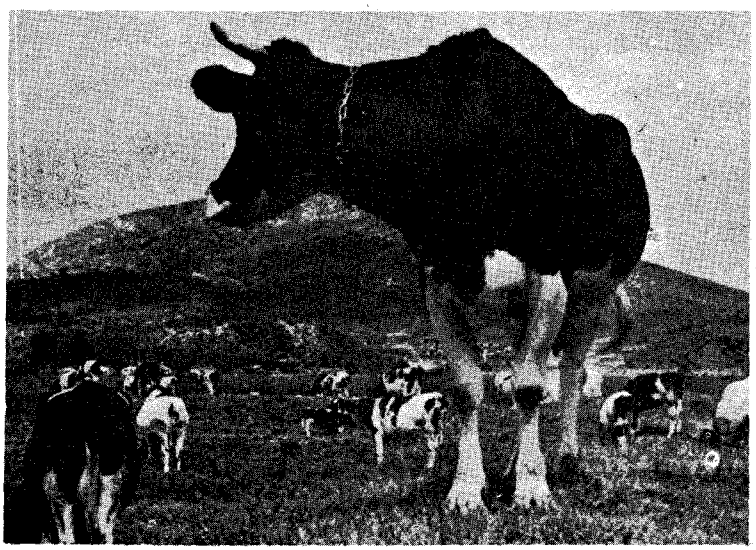
농수산부는 낙후된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지방도시에 축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가축시장운영방식도 중개제에서 경매제로바꿔나가기로 했다.

집유방법 개선에 따른 간담회 개최

—농수산부, 집유방법 개선방안 제시—

농수산부는 2월 26일 오후 2시 농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한국 낙농협회장, 유가공협회장, 축산단체연합회장, 낙농조합장, 종축개량협회장등 낙농관계인사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집유방법개선 검토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 지난 76년 11월 20일 이래 지속되어온 집유선동결조치의 문제점 해결에 따른 우유유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집유선동결조치의 문제점과 농수산부가 제시한 3가지 집유방법 개선방안(① 지역별 집유구역 업체별 지정, ②축협 또는 낙협이 집유하여 유업체별로 배정, ③축산진흥회가 일괄 집유배정)에 대하여 열띤 의견을 교환 집유선동결조치에 대해 김운



형 낙농협회 부회장은 「유업체는 비대시킨 반면 농가는 몰락시킨조치」라고 비판 했으며 유윤수 축산단체연합회장은 「민주정치 발전에 상응해서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하는등 모든 참석자들은 집유선동결조치가 불합리 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그러나 농수산부가 제시한 집유방법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협의회에서 연구·검토키로 했다. 한편 농수산부가 제시한 3가지 집유방법 개선방안과 그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별 집유구역 업체별지정

(장 점)

가. 유대안정및 유통체계확립

나. 동일지역에 1개업체의 집유차만 운행되어 유류소비절약적 국가시책에 부합되며 유업체의 집유경비절감으로 유제품가격안정에 도움

다. 낙농가의 집중적인 기술지도가능.

(단 점)

가. 납유회망업체 자유선정 불가능에 대한 농가의 불만은 현행과 같으며 조합의 경우 연말의 이익배당, 이용고배당등의 혜택이있으나 회사의 경우 주주에게만 이익배당

나. 유업체가 입식한 유우의 융자금 회수및 설정된 담보 변경조치가 지난

다. 유업체별 대농민서비스 차이에서 오는 지역별 불만 발생

라. 타사 집유장 인수도및 임차료 결정상 문제(감가상각비, 투자비, 지대등의 계산등의 계산상 문제)와 근무직원의 처리문제(집유장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문제)가 있음.

2. 축협 또는 낙협이 집유, 배정

(장 점)

가. 유대안정및 집유체계확립

나. 동일지역에 1개업체의 집유차만 운행되어 유류소비절약적 국가시책에 부합

다. 낙농가의 결속과 축협 또는 낙협육성에 도움

(단 점)

가. 유업체의 유우신규입식 기피및 기입식한 유우의 융자금 회수와 설정된 담보변경조치가 지난

나. 유처리가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축협 또는 낙협이 수유량중 자체소요량 충당후 타사에 공급할가능성이 있어 일반유업체와 조합간에 분규 야기 우려

다. 조합의 집유수수료 부담으로 유제품가격 앙등요인 추가

라. 각사의 대농가 지도사업 중단으로 비위생적 분량유 증가및 낙농경영기술 낙후 우려

마. 일반유업체 소유 집유장 인수도및 임차료 결정상 문제와 직원대책 문책 문제

바. 조합간의 수유구역조정및 조합원 분리 곤란(조합기간의 우수, 불실차 조정)

3. 축산진흥회가 일괄집유 배정

(장 점)

가. 유대안정및 집유체계확립

나. 우유의 품질및 납유량 검사등에 대한 농민의 불신 제거

다. 축진회가 낙농진흥업무에 보다 깊은 관련을 맺어 낙농발전에 도움(능력검정에 대한 자질개량, 기술지원단에 의한 사양기술 개발, 진료등의 지도업무 강화, 초지의 조성 이용관리 지도 철저)

(단 점)

가. 유업체의 신규입식 기피 또는 둔화

나. 기입식한 유우대금 회수문제 발생

다. 축진회의 취급수수료만큼 유제품가격 앙등

라. 유업체 소유 집유량의 인수도및 임차료 결정 복잡.

마. 축진회의 기구및 인력의 대폭 증대와 자금 증대.

'80년도 수의사 보수교육

- 3월3일부터 가축위생연구소서 -

80년도 수의사 보수교육이 3월3일부터 29일까지 안양가축위생연구소에서 실시된다.

축산진흥회주관, 가축위생연구소, 대한수의사회 협조로 진행되는 수의사 보수교육은 새로운 진료기술보급으로 수의사 자질을 향상하고 가축방역에 의한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이번 보수 교육에는 전국의 250명의 공·개업 수의사가 참가한다.

이번 교육 대상자는 신규 도입우 입식단지내 공·개업 수의사, 한우 개량지구 및 인접지구 수의사, 기타 교육희망 공·개업 수의사인데 교육은 실시·실습 위주로 실습용 대동물을 활용하며 가축위생연구소의 실습기재를 이용하게 된다.

또한 교육을 마친 수의사에게는 교과평가를 실시하여 총점 100점 만점에 종합평점 60점 이상이면 수료증을 교부하며 교육 불참자와 미수료자에게는 공수의 해촉, 개업 수의사 폐수 검안 지정 취소등 조처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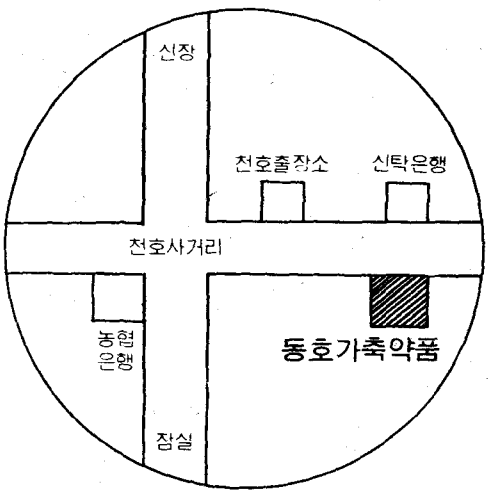
한편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기당 최우수상(장관상) 1명, 우수상 3명(축산진흥회장상등)을 선발 시상하고 교육태도 성실자 1명도 표창하는데, 교육 수료자에게는 앞으로 공수의 위촉에 우선하며 도입우 및 축산 단지 전담 수의사로 지정하도록 권장된다. 또한 교육 결과 개인별 성적은 농수산부장관이 각 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된다.

동호가축약품상사

○난치성 질병 상담

○칠면조 사양·질병상담

○가축약품 종합판매



수의사 : 이 동 춘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10—186

☎ 48—0865

○ **김영환(신흥부회장대표, 본지편집위원장)** : 수원시 서둔동 292—1로 사무실 및 자택이전 ☎ (수원) 6—2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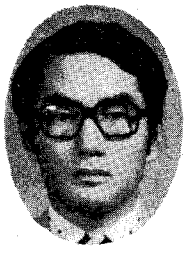
(김 영 환)

(민 병 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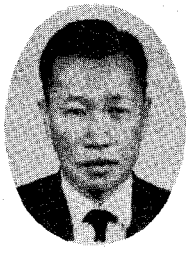
○ **선진낙농업계시찰** : 미국사료곡물협회 주선으로 정부대표 및 낙농인들로 구성된 선진낙농업계 사찰단이 2월25일 출국. 시찰단은은 김환경박사(고대), 이인형(농수산부), 허은(영일농축연구원), 유재일(축진), 최병완(두산개발), 민병열차장(미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으로 구성되어있다.

○ **한호섭 (부국사료〈주〉대표)** : 최신자동기계설비로 신설하게 되는 배합사료공장 설계를 위해 2월 21일 호주로 출국.

부국사료는 인천에 새로운 공장건설을 위해 부지 2만여평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한 호 섭)



(김 원 복)

○ **동심회(회장 : 김원복)** : 2월 월례회의를 2월 23일 안양관광호텔에서 개최

○ **농협중앙회(회장 : 이득룡)** : 지난 2월 21일 정기총회를 열고 2월로 임기만료 되는 36명의 전대의원을 새로 선출, 대의원은 군조합의 각도별로 선출하는 3명씩과 서울·부산시 조합장, 제주도 대표 각 1명 및 특수조합대표 9명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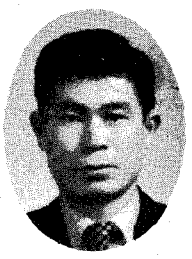
○ **이규은(대영농산〈주〉상무)** : SPF 양돈 및 사료공장과 기술유대를 맺기위해 20일간 예정으로 3월초 도일예정.

○ **경인기계공업사(대표 : 정완철)** : 태양열을 이용한 축분건조발효기 개발. 실용신안특허 출원중 연락처는 ☎ (63) 4771

○ **동래축산상사 (대표 : 김창호)** : 그간 영남지역의 축산기구 단미사료 알선업무를 하던 것을 금번 업무확장으로 축산소개업(축사 매매·임대알선, 가축매매알선, 농장매매·임대알선, 기타 축산관계 부동산 소개 및 알선)을 개시하고 축산소개업 후원회도 조직 연락처 ☎ (부산) 52—3092

◈ **광주부화장(대표 : 박종인)** : 영업부 이문희씨를 부장으로 승진발령하고 사세확장에 따라 ☎ (8) 1107과 (8) 2198을 신설.

(박 종 인)



(최 진 호)

◎ **우성실업〈주〉(대표 : 정인범)** : 연구실장에 최진호박사(전 축산시험장 연구관)를 기용